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전화:02)6788-3626

여성정치인에 대한 온라인상 괴롭힘과 각종 폭력을 중단하라

여성정치인에 대한 온라인상 괴롭힘과 각종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한 유튜버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 앞을 찾아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사생활 침해이자 명백한 폭력 행위이며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가 노출됨으로써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여성정치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로 규정한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며, 여성정치인에 대한 폭력 또한 마찬가지다. 온라인 상의 성희롱, 괴롭힘 등이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모욕과 외모품평, 혐오표현 등의 공격도 도를 넘은 상황이다. 청년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여성혐오는 더욱 심각하다.

여성정치인이 폭력과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정치적 활동을 위협받는 상황은, 정치에 참여할 의지를 가진 여성들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여성 리더십 확대를 저해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지연시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등 신속한 조치를 할 것임을 결정했다. 전국여성위원회도 여성정치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노력하겠다.

2022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